

Gary Yates 박사, 12권, 세션 1, 선지자들의 성역과 메시지, 1부

© 2024 게리 예이츠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소선지서에 관한 강의 시리즈의 Dr. Gary Yates입니다. 1강 '선지자들의 사역과 메시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소선지서 연구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싶습니다. 저는 게리 예이츠 박사입니다. 저는 린치버그에 있는 리버티 침례신학교에서 구약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연구에 대해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기대하고있어. 저는 리버티에서 소선지자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사람들이 온라인에서도 이 내용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기쁩니다.

제가 구약학 교수라는 직업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교회에서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나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성경의 일부를 가르칠 기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12서나 소선지서가 여러분이 공부하지 않은 성경의 일부라면, 이 책들에서 우리가 하는 강의와 시간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에게 이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Dr. Ted Hildebrand에게 감사드립니다.

그의 마음과 열정은 사람들이 스스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과 도구를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구약에 익숙해지는 신학생이라면, 정식 수업에서 이 책들을 공부할 자원이나 기회가 없었던 목회자라면, 그러한 유형의 교육을 받을 수 없다면, 이 연구는 특히 귀하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축복하시고 그것을 존중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8년 동안 목사로 봉사하고 지난 14년 동안 교수로 봉사하면서 나는 오늘날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고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임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주의 교회로서 우리가 행한 일 중 하나는 성경에 대한 헌신과 우리 사역의 초석으로서의 성경의 중요성을 여러 면에서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가르치고 설교하면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소선지자들은 강력합니다. 나는 1986년 달라스 신학교에서 수강한 선택과목에서 처음으로 그것들을 공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나는 이 책들과 사랑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의 하나님과도 사랑에 빠졌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책들이 여러분이 더욱 완전하고 깊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지자들의 사역, 그들이 누구였는지, 그들이 수행한 역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들이 구약성서에 기여한 공헌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면서 이 연구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과 우리 삶에서 그분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구약을 알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를 만나셨습니다(눅 24장).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낙담했고 실망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우리는 예수가 메시아이기를 바랐더니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하더라.

그는 죽었어. 우리의 희망은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회를 이용하여 구약성경을 사용하여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고, 높아지는 것이 왜 필요한지 보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구약의 세 부분인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으로 시작하여 체계적으로 가르치시고,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역할과 사명에 대한 독특한 이해를 제공했다고 믿습니다. 배경지식 없이, 구약에

대한 이해 없이 신약으로 들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무엇을 하셨는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연극의 3막이나 영화의 마지막 시간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구약은 무대를 설정하고 예수님이 성경 전체 이야기의 목표이자 성취이심을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사역과 그들이 행한 사역을 살펴보면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지막 선지자이십니다. 신명기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의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종말론적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 면에서 그가 하나님 나라에 관해 와서 가르치고 전파한 그의 사역은 선지자의 사역이었습니다. 한번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의 하나인 예레미야라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이 그를 그렇게 이해한 이유는 예수님이 선지자의 직분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선지자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메시아였지만 선지자이자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것이 그의 사역과 메시지의 핵심 부분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시며 이르시되 너희 집이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하시고 성전은 헐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은 여러 가지로 이루어 하심이니라 예레미야나 에스겔의 역할을 맡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분의 왕국을 가져오시기 전에 또 다른 포로, 또 다른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께서 행하신 역할을 이해하고 싶다면, 히브리서 1장은 하나님이 여러 때에 여러 방법으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자기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선지자 사역의 정점으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알고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예수님의 메시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시급하다는 점과 그 예언적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책임이

시급하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을 올바른 방법으로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려면 그들이 누구였으며 그들의 메시지와 사명과 사역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강의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첫 번째 점은 선지자들은 특정한 사역과 메시지를 위해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성경에서 선지자를 뜻하는 나비 (nabi)라는 동족 증거는 그 단어의 개연성 있는 의미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리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소망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거나 들리는 대로 말씀하셨고 그들을 특정한 사명과 사역에 부르셨습니다. 고등학교 때, 대학에서 미래에 대한 결정을 내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역으로 부르신다는 생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를 부르시는 것은 그보다 더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대변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6장에서 이에 관해 말하는 구절을 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여호와께서 왕으로서 그 위대하심을 나타내시며 보좌 주위에 있는 스랍들이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그리고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가서 우리를 대신하여 말할 것인가? 그리고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스라엘과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이에 대한 예레미야의 반응은 “아, 주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나는 말하는 방법을 모른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야 내가 내 말을 네 속에 두어 네가 말할 수 있게 하고 네 앞에 닥칠 반대에 맞서 너를 강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선지자 에스겔의 사역에서 그의 사역은 이 강력한 병거 환상을 통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실 때 시작됩니다. 이 폭풍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가 그가 그 사역을 완수하고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위해 그들을 부르셨다는 강한 의미가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를 부르신 소선지서에서 이에 대한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7장 14절에서는 아모스가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니라 했습니다. 나는 선지자의 아들은 아니었으나 목자와 뽕나무 재배자였느니라. 아모스의 '나는 선지자가 아니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니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내가 직업적인 선지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직업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권리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양 떼를 따르던 나를 데려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나님은 그에게 특별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런 식으로 부르셨을 때, 그것은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맡기신 것은 의무였습니다. 요나서에는 이에 대한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대변인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셨습니다. 일어나 니네베로 가서 그 도시에 말하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셔서 이 외국 민족에게 가서 말하게 하신 것은 독특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다른 선지자들이 행하는 것을 볼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일어나 부르심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도망치려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요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수행하는 곳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다양한 상황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단순한 직업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의 성향에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하나님은 그들이 그것을 성취할 수 있게 해줄 분입니다. 이와 관련된 두 번째 사실은 그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에게서 이 표현을 350번 이상 본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선지자가 당시에 일어나고 있는 위기나 상황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는 메시지이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네움 아도나이(ne'um Adonai) 라는 표현을 자주 봅니다.

예레미야의 말도 아니고, 아모스의 말도 아니고, 호세아의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영감과 그것이 어떻게 선지자들에게 주어졌는가에 관한 신약의 중요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나 사람의 의견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자기의 뜻대로 말한 것임이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 있는 그림은 바람이 배의 돛을 움직이는 아이디어일 수도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말씀하실 때 그들의 메시지로 인도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호흡해 내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인간 사자를 통해 전달됩니다. 선지자들의 경우, 그들의 구두 메시지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미래 세대를 위해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들도 이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레미야 23장은 참 선지자들의 사역이 무엇인지,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근원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를 거짓 선지자는 단지 자기 마음의 환상과 꿈과 상상만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메시지를 받고 전달합니다. 예레미야는 심지어 그 구절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섰던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결정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도를 알리실 때, 자신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려고 계획하셨는지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 집회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천사들, 즉 사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리셨을 때, 나는 그 일을 수행할 사람들과 함께 있었고, 주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주님께서 무엇을 하실 계획인지를 들었고, 이제 그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나오는 선지자 미가야는 아합의 선지자들을 대적하여 모두 그를 격려하고 싸우러 나가면 승리하리라고 합니다. 미가야는 너희가 전쟁에 나갔다가 살아 돌아온다면 나는 하늘 집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대변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섰고, 주께서 그의 천사들과 그의 사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누가 가서 아합을 피어 전쟁에 나가게 할 미혹의 영이 되겠느냐? 이것은 선지자들이 사용하기에는 꽤 대담한 비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신, 하늘의 사자,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에 섰으며, 그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알리러 가고 있습니다. 구약성서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구절 중 하나는 신명기 18장 15절이다.

그 구절에서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선지자라는 단어가 특이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 구절이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은 예수께서 그

일의 성취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단수형으로 된 선지자라는 단어는 아마도 집합적으로 사용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절이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의 무리를 집합적으로 일으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그의 세대를 위해 수행하고 수행했던 것과 동일한 역할을 그들의 세대에서 수행할 것입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올라가서 여호와께 말씀드리고, 여호와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와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고 하나님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계속할 것이며, 모세가 죽은 후에도 그 메시지를 계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세우신 모세와 같은 일련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모세 바로 뒤에 오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대변인입니다. 그는 생애 말기에 선지자로 성역을 베풀고 봉사한 후 모세가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백성들에게 언약 갱신을 요청합니다. 선지자 직분은 아마도 사무엘과 함께 공식적으로 확립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 왕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권위와 선지자의 직무가 세워졌습니다. 시민 지도자는 결국 영적 지도자에게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은 사무엘을 생각할 때 나단, 갓, 엘리야와 엘리사를 생각하는데, 구약의 선지자 직분 초기에 그들의 사역은 주로 이스라엘 왕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들에게 기름을 부을 것입니다. 그들은 킹 메이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은 여호와께서 왕으로 택하신 사람입니다. 사울이 선택되었으나 사울이 거절당하자 사무엘은 다윗의 집으로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새의 아들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죽을 때 왕위 계승에 대한 긴장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다스릴 것이라고 예언한 것은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초기 선지자직 제도에서 선지자의 역할은 주로 왕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으로 전환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왕들을 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합 왕과 아합의 집과 그들의 배교와 바알 숭배에 대한 변절에 관해 대결할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와 엘리사는 또한 국가적인 배도가 있기 때문에 일반 백성을 섬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야훼께 대한 헌신을 다시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기록 선지자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열두서가 소선지서입니다.

8세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신 것은 지금이 위기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북쪽 왕국 이스라엘과 남쪽 왕국 유다,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여호와를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왕들 대다수와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어떤 면에서든 하나님께 불충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8세기 아모스 때부터 고전 선지자나 기록 선지자들을 일으키사 임박한 국가적 위기와 국가적 재앙을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앗수르 위기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의 무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앗수르 제국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회개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결국 북쪽 왕국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유다 왕국에 대한 바빌론의 위기, 바빌론은 앗시리아를 대신하여 고대 근동의 주요 제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백성이 그들의 길을 바꾸지 않는다면 바벨론을 사용하여 그들을 처벌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선지자들을 세우십니다. 포로 기간 이후에는 백성들이 그 땅으로 돌아온 후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왔지만 아직 주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또 다른 선지자 그룹을 일으키셔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궁극적으로 계획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의 역할은 구약의 전체 역사에 걸쳐 존재했으며 그들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변인입니다. 그들은 모세 이후, 사무엘 이후 직분으로 세워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들의 메시지, 선지자의 역할, 그들이 선포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의 역할과 일, 사역과 메시지를 이해하려면 구약의 언약과 구약의 역사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 모든 다양성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권을 이행하는 방법으로 세우신 언약을 성취하시는 일련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아담을 그의 부섭정으로 창조할 때 너는 나의 형상이 될 것이다. 그 모든 계획은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손상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의 자리로 회복시키고, 인간을 하나님의 부섭정으로서의 역할로 회복시키시며, 궁극적으로는 만물의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역할을 회복하시기 위한 구속의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주님은 구약에서 일련의 성약을 통해 자신의 왕권을 행사하십니다. 나는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에 관해 널리 퍼져 있는 두 가지 생각이 하나님이 왕이시며, 하나님께서 이 언약들을 통해 그의 왕국을 시행하신다고 믿습니다.

언약이 처음 언급되는 곳은 창세기 6-8장이다.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땅에 심판을 내리기 위해 사용하실 세계적인 홍수를 통해 그의 가족을 안전하게 인도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후에 더 이상 물로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은 지구의 지속을 보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그 언약을 통해 인류에게 의무를 부여하셨습니다.

사람은 피를 먹어서는 안 되며, 그 다음으로 더 큰 의무는 폭력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신 이유 중 하나는 사악함과 강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의 피도 흘릴 의무가 인류에게 지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폭력을 억제하고 애초에 홍수의 심판을 초래한 사악함을 제지하고 예방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이 종종 열방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원래의 노아 언약에 기초를 두게 될 것입니다. 홍수 이후, 바벨탑에서 다시 인류의 반역이 있을 후, 하나님은 한 나라, 한 특정 그룹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핵심 구절은 창세기 12장, 창세기 15장, 창세기 17장, 창세기 22장입니다.

그 언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구체적인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어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오랫동안 아들조차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심장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땅, 약속의 땅,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살게 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에게 축복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르시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리라 하신지라

너를 저주하는 자들을 내가 저주하리니 그리고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통해 그들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머지 인류에 대해서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2장의 인간을 축복하고 인간이 부섭정으로 통치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의무를 주셨습니다. 할례는 그 언약의 표로 제정되었습니다.

그것은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내 앞에서 행하여 흠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도구가 되려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신실하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언약에는 모두 약속과 의무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여러 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기초를 두고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간 후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들을 큰 나라로 회복하실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세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백성이 된 후에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한 나라로 세우시고 시내 산으로 데려가시며 그들에게 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는 헌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시내산 언약 또는 모세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 언약의 핵심 구절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당신을 나 자신에게 데려왔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당신을 선교사로 부르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한 백성이 되어 독특한 방식으로 살도록 부르고 있다. 나는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노라.

제사장의 역할은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중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계명, 즉 율법을 요약한 10계명, 즉 613계명 전체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언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다면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과 같은 구절에서 우리를 위해 제시된 언약의 축복과 언약의 저주를 읽을 때 우리는 그 축복과 저주가 무엇인지 이해합니다. 축복은 그들이 그 땅을 누릴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들은 장수할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자녀를 가질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것을 풍성하고 충만하고 깊은 방식으로 즐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열방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군사적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그들은 안전할 것입니다. 그들은 평화로운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불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의 축복을 빼앗아 가는 자연의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군사적 패배와 포로생활에 관한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은 궁극적인 형벌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땅에서 데리고 나가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원래 있던 애굽으로 다시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모세 시대에 확립된 때부터 선지자들이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와 함께 일어나는 8세기의 초기 선지자들까지의 구약성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땅과 명령에 불순종하고 불성실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성약의 사자로서 백성에게 성약의 책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또한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모세 이후 또 다른 언약을 세우셨는데,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구약의 네 번째 언약은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이에 대한 핵심 구절은 사무엘하 7장에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고 싶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네 가족이 그렇게 할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수반하는 것과 그것이 수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한 아들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의 아들 솔로몬이 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시대까지 다윗 왕조가 계승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문, 다윗의 왕조,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무조건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나는 사울에게서 행한 것처럼 다윗에게서도 내 사랑을 빼앗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다윗의 왕좌와 다윗의 왕국을 세우겠다.

그러나 다윗 언약에도 여기에는 조건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 계보를 이어 계속해서 이어지는 다윗의 각 자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대한 순종에 따라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형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명령은 왕에게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그는 왕위에 오를 때 자신의 책임을 상기시키기 위해 자신의 율법책 사본을 직접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정치인들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왕이 법을 준수해야 하는 책임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 왕조는 궁극적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보좌에서 제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2,500년 넘게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다윗 왕조는 없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언약에 헌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다윗의 영속적이고 영원한 왕국에 관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서 지금 당장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고 통치하고 계시며, 주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다윗 언약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의 약속을 모두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에 의해 제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은 다윗 왕의 통치와 권위와 군사력에 의해 소유될 것이며 그 땅은 영원히 유지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다윗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모델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는 예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왕이 되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온 민족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복을 받게 하려 하심으로, 이 한 사람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온 민족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성경 전반에 걸쳐 우리가 보는 것은 다윗 왕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국가적 축복이 온 백성에게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조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백성들에게 국가적인 형벌이 닥치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언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로운 방법이었고, 이 사람이 나에게 순종하면 이 나라가 복을 받을 길을 열어 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슬픈 현실은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는 것조차 결국에는 큰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 솔로몬, 그리고 모든 선한 왕들, 심지어 그 왕들조차도 궁극적으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의 역할은 다윗 언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다윗 언약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사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약속의 측면에서,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궁극적인 다윗, 이상적인 다윗, 메시아적인 다윗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그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위해 계획하고 의도하신 모든 것을 성취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의 다른 측면은, 만약 그들이 자신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왕들을 처벌하실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2장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며 공의를 행하면 왕위를 지키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일련의 언약을 세우신 후,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한 백성과 지도자들과 왕들과 종교 권세자들과 관원들과 여러 해 동안 선지자들은 그 문제에 관해 그들에게 맞서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선지자들의 약속은 궁극적으로 이 심판이 끝난 후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백, 수백년 동안 옛 언약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파하고 새 언약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약성경의 핵심 구절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인데, 그 구절에는 두 가지 핵심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과거의 죄를 용서하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포로의 심판을 집행하신 후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또한 네 장래를 위하여 능력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법을 네 마음에 기록하사 너로 순종할 마음과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할 것.

학생들에게 이를 설명하기 위해 나는 종종 잔디에 접근하지 말라는 표지판을 볼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자마자 즉시 바라는 것은 잔디를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잔디 위를 걷고 싶다는 것입니다.

표지판에는 하지 말라고 적혀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는 그것에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젖은 페인트라고 적힌 간판을 보면, 그게 의도한 바는 아니더라도 마음속에는 만져보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들었을 때에 그러하였느니라. 죄 많은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그들이 그분께 순종하고 따를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임한 이 끔찍한 심판, 무너진 포로 생활, 앗수르의 위기, 바벨론의 위기, 이스라엘이 살아가게 될 외세의 지배 등은 미래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순종할 능력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 예레미야는 새 언약 이라는 특별한 용어를 사용한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 그러나 새 언약에 대한 개념은 선지자들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선지자 요엘은 마지막 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그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영은 이스라엘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할 영입니다. 에스겔은 예레미야 31장에서 예레미야가 말한 것을 거울삼아 에스겔 36장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희의 더러움과 죄로 인한 더러움을 씻어 주실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 안에 새 마음을 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방법은 영의 사역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말하는 내가 율법을 네 마음에 기록하리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되나요? 에스겔 36장과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영을 부어주심으로써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려는 능력과 소망을 그들에게 주실 것임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이사야 32장 14절과 15절, 주님께서 메마른 사막에 물 같은 영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59장 20절과 21절, 내가 내 말을 내 백성의 입에 두어 그들이 나를 알고 따르며 내가 명령한 것을 행하게 하리라. 스가랴 12장, 내가 내 백성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리니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의 백성에게 순종하고 따르려는 소망을 주심으로써 구약의 실패를 되돌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구속의 역사 전체, 즉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추적하는 데 약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전하는 사자들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는 이것이 필수적입니다.

스캇 듀발(Scott DuVal)과 J. 다니엘 헤이즈(J. Daniel Hayes)는 그들의 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에서 네 가지 진술로 선지자들의 언약적 메시지를 요약합니다. 제 생각에 이 내용은 매우 훌륭한 요약문이며 이를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언약에 관해 우리가 보게 될 첫 번째 개념은 그들이 사람들에게 당신이 죄를 지었고 언약을 깨뜨렸다고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이 앗수르 왕의 사신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거나 헷 족속의 왕이 그 나라에 속한 백성 중 하나에게 사신을 보내려 함과 같이 선지자들이 사신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언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법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일반적인 연설 형식 중 하나는 선지자들이 종종 우리가 예언적 심판 연설이라고 부르는 것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적 심판 연설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비난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이 당신이 잘못된 일입니다. 백성에 대한 기소가 있는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모세 언약의 조건과 규정에 기초합니다.

그리고 고발 뒤에, 고발 뒤에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포할 공고도 있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실 일이니라. 이는 너희가 범죄한 것과 언약을 어긴 행위로 인하여 너희가 받는 심판이니라 이사야서 5장 8절부터 10절에 이러한 심판 연설 중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말하기를, 가옥에 가옥을 합하며 밭에 밭을 더하여 자리가 없어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혼자 살게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맹세하시되 반드시 많은 집이 황폐하게 되며 크고 아름다운 집에 거민이 없게 되리니 이는 십 에이커의 포도원이 한 바트와 한 호멜의 종자를 낼 것인즉 한

에바 뿐이니라. 선지자가 하는 일은 우리에게 예언적인 심판 연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첫 번째 부분은 기소, 고발입니다. 들판과 들판, 집과 집이 더해졌습니다. 당신은 탐욕스럽게 살면서 이웃의 재산을 빼앗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웃을 착취하고 이용했습니다.

"레켄"이라는 단어로 소개되는데, 이는 주님께서 내가 맹세하여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훔친 집과 땅과 재산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의 부와 재산과 소유물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빼앗은 이 땅은 당신이 기대했던 작물을 생산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예언적 심판 연설에 수반되는 비난과 발표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그리고 종종 그 연설에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벌이 범죄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유죄였고, 사람들의 땅을 훔쳤으며, 사람들을 학대하고, 학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공의롭게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작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소선지서 미가서 3장 9~12절에는 예언적 심판 연설의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 집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집의 통치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러므로 이 심판의 말씀은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을 굽게 하며 피로 시온을, 죄악으로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지도자들을 위한 것이니라. 그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을 하고 그 제사장들은 댛가를 위하여 가르친다. 선지자들이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하느니라 어떤 재앙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 범죄가 있고, 여기에 비난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부패 했고, 폭력, 불의, 뇌물수수, 부정직을 자행했습니다. 국민의 지도자들은 최악의 범죄 집단보다 나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선지자들은 유익을 위해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난입니다. 3장 12절에는 장차 있을 심판이 선포됩니다.

그러므로 가인처럼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으로 인해 시온은 밧쳐럼 갈아엎어지고, 예루살렘은 폐허 더미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목이 우거진 높은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당신이 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예루살렘 성까지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너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성전 산까지도 무너져 무너지리라.

그래서 이 언약 메시지의 첫 번째 부분인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여러분이 죄를 지었고 언약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러한 비난을 하고 죄 있는 백성을 비난할 때 우리가 보는 것은 그들이 특별히 모세의 언약,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613계명을 위반한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에서 모세는 이 언약을 세울 때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 백성에게 이르노니

그리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갈 때에 너희가 언약을 지키는지, 계명을 지키는지를 그들이 잠잠히 관찰할 것이다. 이사야 1장에서 이사야는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백성들에게 설교하면서 “땅 이여 들으라 하늘이여 들으라” 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증인들을 다시 법정으로 데려오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지난 6년, 70년 역사를 살펴보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계명을 지켰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의무를 얼마나 잘 그리고 얼마나 충실하게 수행해 왔습니까? 대답은 그들이 전혀 그렇게 잘 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소의 근거입니다.

호세아 4장에서 또 다른 종류의 주님은 선지자를 기소자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호세아 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논쟁을 벌이시기 때문이니라.

신실함도 없고 변함없는 사랑도 없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욕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살인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간음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경계를 허물고 유혈사태가 뒤따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은 모세 율법에 나오는 10계명 중 5개가 언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판단의 근거이다.

언약의 메시지는 당신이 죄를 지었고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언약 메시지의 두 번째 부분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성서에서 회개하라는 단어, 슈브(shub) 라는 단어는 구약성서의 선지자들 전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나중 수업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12장에서 가장 반복되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격려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들의 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회개한다면, 그들이 수백 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불순종한 이 역사에서 돌이킨다면,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피할 기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심판.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회개에 대한 가장 열정적인 촉구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이시니라

그가 돌이켜 뜻을 돌이키고 그 뒤에 복을 남겨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릴지 누가 알겠느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단지 외적인 일이 아닙니다. 단지 옷을 찢지 말고, 종교 의식을 치르지도 말고, 희생 제물을

바치지도 말고, 진정으로 여러분의 길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들이 살아남을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를 찾으면 살리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심판을 피할 기회가 있습니다. 예언적 언약 메시지의 세 번째 부분은 회개가 없으면 궁극적으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은혜롭게도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찢어 죽이기를 원하시는 단지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그들을 멸망시키고 멸망시키려는 진노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이 심판을 피할 실제적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소선지서 12장을 통해 추적할 것 중 하나는 초기 소선지서들에서 회개하라는 요청, 즉 심판을 피할 기회를 크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은 회개의 사례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점차적으로 폐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일단 거부하고, 거부하고, 고집스럽게 고집한다면,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사역의 설교에서 이에 대한 예를 봅니다. 예레미야는 종종 일종의 표징 행위, 실제적인 드라마를 선보였는데, 이는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어느 날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에게 갔는데, 토기장이가 바퀴 위에서 젖은 진흙 조각을 만들고 있는데 그 진흙이 망가져서 토기장은 그것을 부수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 파멸되었으나, 하나님은 기꺼이 그들을 재형성하고 개혁하여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19장에서 우리는 예레미야 사역의 두 번째 면을 봅니다. 백성들이 그 기회를 거절했을 때, 그들이 길을 바꾸어 심판을 면할 기회를 거절했을 때, 결국 예레미야는 토기장이에게로 갔습니다. 그는 이미 화덕에

구워진 질그릇을 사서 지도자들과 백성 앞에 서서 그것을 땅에 깨뜨리며 말하되 결국 백성은 이러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언약 메시지의 네 번째 부분은 이 심판이 일어난 후에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선지자들이 또한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이 있는 후에는 궁극적으로 회복이 있을 것이다.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심판과 구원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책에서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의 백성의 언약 불성실로 인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적 약속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궁극적으로 네 왕국과 보좌를 견고하게 하리라. 당신의 아들들은 영원히 통치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선지자의 글에는 심판과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소선지서의 개별 책들을 연구할 예정이지만, 여기서 초기 단계에서는 선지자들의 사역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더 잘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약의 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에서 그들은 네 가지 중요한 것을 말했습니다. 당신은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고 길을 바꿔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심판이 끝난 후에는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12장을 공부하면서 이러한 세부 사항을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소선지서에 관한 강의 시리즈에서 Dr. Gary Yates입니다. 1강 '선지자들의 사역과 메시지'입니다.